



주 제:	“두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2008년 6월 29일
복음 묵상:	[마태 16,13-19]	[사도 12,1-11]	[2 디모 4,6-8.17-18]

오늘 우리는 2천 년 교회 역사와 함께하며, 특별히 로마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래아의 어부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삶의 터전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선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바오로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의 걸음을 갖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 장은 사울로 불리던 그가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잘 알려 줍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완고했던 그의 마음을 땅에 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9,4)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동안 사울이 박해한 그리스도교와 자신이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사울이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니아스에 의해 선포된 복음과 안수를 통해 비로소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전해 주듯, 특별히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바오로.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라고 대답하신 예수님. 이토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에 하느님 생각과 인간 생각의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 감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바오로의 모습과 이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느님께서는 인간적 연약함 혹은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도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서울 변종찬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지난 주 6/22 일 교중 미사후 지휘자, 반주자, 임원 및 각 파트장님과 다니엘 형제님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임원회의에서 토의된 사항과 결정된 사항은 금주 미사후 모든 성가대 가족들에게 별지로 회의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최일해 다니엘 형제님**, 사업차 7월 2-9 일, 일주일의 짧은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행중에 하고자하는 모든 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편안히 다녀 오십시오..
- **이현아 베로니카 자매님**, 7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알림

6/29(일) 성가대에서 몬트레이 공소를 방문합니다. 간단한 점심 식사후 오후 2 시경에 출발하여 5 시부터 간단한 성가 연습후 6 시에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사중 성가: 입당: 55 번 봉헌: 206 번 성체: 344 번 파견: 291 번
 현재 벤이 두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카타리나 자매님과 강 세실리아 자매님의 벤이 준비되었습니다.

+ 복음 [마태 16,13-19]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분 명상

♡ 마음의 주인이 되라 ♡

- 범정스님의 '무소유' 중에서 -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등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은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 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견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 들이다가 한 번 응졸해지면
바늘 하나 꽃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 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